



성결대학보

SUNGKYUL
NEWSPAPER

CONTENTS

교육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교육목표 기독교적 지도자 / 창의적 전문인 / 자율적 봉사자

NO.382 2021. 03. 16 Tue

발행인 한종길 주간 임태균 간사 조선희 편집장 김가운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tel. 031-467-8351, 8276 http://www.sungkyul.edu



3 보도
사회봉사센터,
'2020 자원봉사
우수 수요처' 선정



6 사회
빠아른 '이루다' 후유증,
까발려진 세상의 민낯



8 사회
어서 와,
대학교는 처음이지?



11 문화
인생의 목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환영사

2021학년도 개강사



총장 직무대행 **한종길**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 총장직무대행 한종길입니다. 교직원을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하여 입학식도 개강식도 비대면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2020학번 학생들은 입학 이후 제대로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한해가 지나가 버리고 올해도 온라인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총장직무대행으로서 미안한 마음 가득합니다. 작년은 우리대학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들이 전체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 여러 시행착오로 어려움도 있었고, 잘 준비되지 못한 강의도 있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에도 적응할 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이 직면하게 된 가장 큰 도전은 “교육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학생들이 강의실에 모여서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귀로 듣지 않는 상황은 누구도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각 대학들

이 온라인 강의를 확대하자고 논의는 했지만 실행은 매우 더디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했고 한 번에 최대 5천여명이 동시 접속하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재학생 여러분, 우리 대학은 작년부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일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편한 사항들은 학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포스트코로나시대, 온라인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을 목표로 비대면·온라인강의를 위한 성결대학교의 교육혁신을 위해 기존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플랫폼인 “성결사이버캠퍼스(SKUCC)”를 개설하였습니다. 보다 공고한 온라인 교육을 위해 미디어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강의 동영상 사전제작용 자동녹화 강의실을 구축하였고, 온라인 수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업운영가이드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우리 성결대학교의 온라인교육은 코로나19에 일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교육플랫폼 구축을 통한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차세대교육방식을 지원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세계 모든 대학들이 맞이하고 있는 변화와 위기의 시점에 지속가능한 교육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기 위하여 과감하고 지혜로운 혁신이 필요합니다.

재학생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이 하루 속히 종식되어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하게 되는 그 날이 몹시 기다려집니다. 저를 비롯하여 학부 학과의 교수님과 행정부처의 직원들, 그리고 동문들에 이르기까지 성결공동체 모두가 2021학년도 1학기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싱그러운 봄날의 햇살아래, 손에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갑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성결공동체 모두에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성결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경제학 박사 **한종길**

미리보기

방치가 만든 쓰레기 산



<7면에 계속>

어서 와, 대학교는 처음이지?



<8면에 계속>

홈스테이 속에 피어난 작은 카페, K-디저트



<12면에 계속>

마이ナビ코리아(주)·세이카쿠샤코리아(주)와 협약식 가져



지난 1월 14일(목) 본교 대학일자리개발처는 라마다호텔에서 마이ナビ코리아(주), 세이카쿠샤코리아(주)와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과 간담회를 열었다. 협약은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의 해외 취업,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해외 산업체에서의 실무경험과 취업 기회를 확장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마이ナビ코리아(주), 세이카쿠샤코

리아(주)는 본교 문화프레임비데이터 연구소의 컬처마이닝(culture mining) 기술과 정보 교류에 협력하고, 재학생뿐만 아니라 경기남부지역 대학생들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자체, 정부기관의 해외취업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하기로 결정했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고(故) 성기운 교수 1천만 원 ‘제자사랑 장학금’ 기탁

지난 12월 16일(수) 고(故) 성기운 교수의 유가족이 고인의 뜻을 담아 1천만 원을 ‘제자사랑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2020년 11월 14일(토) 별세한 고(故) 성기운 교수는 1999년부터 본교에서 23년간 봉직하면서 제자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쳤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배려심과 올곧은 성품을 간직한 따뜻한 스승이었다. 유가족은 “고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행복한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한다”고 밝혔다.

성결대 이상인 총장 서리는 “스승의 사랑과 나눔의 미덕을 보여준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고인을 기억하고 송고한 뜻을 기리겠다”고 말했다. 기탁한 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범 학생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이달의 학우 동향

• 2021학년도 중등임용(체교) 선발고사 최종 합격자

이름/학번	지역
강한별(체교 08)학우	서울(사립)
김다한(체교 09)학우	경기
김선영(체교 10)학우	경기
김진용(체교 10)학우	경기
김덕승(체교 11)학우	경기
허준원(체교 13)학우	경기
김지용(체교 14)학우	경기
김남규(체교 14)학우	경기
박동준(체교 15)학우	경기
박상훈(체교 16)학우	경기
김연수(체교 14)학우	충남
문재영(체교 15)학우	충남
오선애(체교 16)학우	충남
송영민(체교 13)학우	강원

• 2021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시 최종 합격자

이름/학번	지역
최한나(유교 08)학우	인천
손민지(유교 11)학우	경기
정승주(유교 11)학우	경기
강민지(유교 11)학우	경기
황주혜(유교 13)학우	경기
남상은(유교 15)학우	경기
길민선(유교 16)학우	경기
신은지(유교 16)학우	경기

본교 유아교육과 배지현 교수, 성결대부속유치원장 박수정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본교 유아교육과 배지현 교수와 강의교원 박수정 성결대 학교부속유치원장은 지난 12월 31일(목) 교육부 주관 개정 누리과정 후속 현장지원 자료개발의 연구책임자와 연구책임기관장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2020년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공적내용은 ‘2020년 유아교육발전 유공’이며, 연구주제는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자료 개발이다. 개발된 자료는 전국의 공사립 유아교육기관에 배포돼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본교 유아교육과는 교육자적 사명감을 갖춘 유아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자 교육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성결대학교 부속유치원은 혁신유치원으로 선정돼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선도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봉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조은실 2020 SKKU-HKUST IPLP Best modeling & Avatar Award, Overall Champion Award 수상

컴퓨터공학과 1학년 조은실 학우는 성균관대학교와 홍콩 과학기술 대학교(HKUST)가 주관한 2020 SKKU-HKUST Intercultural Peer Learning Program(IPLP)에서 Best modeling & Avatar Award 와 Overall Champion Award를 수상했다. IPLP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과 국내 다양한 대학 학생들이 팀을 이뤄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삶의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캡스톤디자인 작품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영어로 진

행된다.

본 학우가 속한 팀은 설계 주제인 “design a future learning solution at home for college students in a small and noisy bedroom”를 달성하고자 VR을 활용한 가상 수업환경 만들기를 통해 좁은 방에서도 실제 학생들이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고,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2021학년도 1학기 성결대학보 기사를 소개합니다

■ 편집장 김가윤(뷰티 19) rt0120@sungkyul.ac.kr

■ 정기자 김민진(연영 17) zzzzzzzzzzin@sungkyul.co.kr
오승민(영문 15) sm961215@sungkyul.ac.kr
김은서(미소 19) yuu456@sungkyul.ac.kr
문예빈(동물 19) cagi77@sungkyul.ac.kr
정우민(정통 20) jelly1110@sungkyul.ac.kr
노하은(중문 20) dmlsu7226@sungkyul.ac.kr

■ 수습기자 정예슬(경영 20) jys020907@sungkyul.ac.kr

컴퓨터공학과 학부생 연구팀, SCI급 논문 게재 확정



본교 컴퓨터공학과 노혜지(4학년), 신슬기(3학년), 한진서(3학년), 임상순 교수가 작성한 논문 'A Deep Learning-based Medication Behavior Monitoring System'이 SCI급 국제 학술지인 Mathematical Biosciences and Engineering(IF: 1.285)에 게재 확정됐다. 학부생이 연구를 진행해 SCI급 논문을 게재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노혜

지 학우는 본교 컴퓨터공학과 최초로 학부생으로서 SCI급 저널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본 논문은 COVID-19 시대에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할 수 없어 원활한 복약지도가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T 기술과 Deep Learning 기술이 결합된 복약지도 모니터링 시스템(Medication Behavior Monitoring System, MBMS)을 제안했다. MBMS는 웨어러블 기기의 도움없이 환자의 복약 행동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의 주기적인 원격 진료를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다. 학부생 연구팀은 H/W 프로토타입을 직접 개발하고, 오픈소스 기반 동작 인식 기술 및 메시징 프로토콜 등을 S/W에 탑재하여 인식 정확도와 전송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본 논문은 MBE 저널의 2021년 Volume 18, Issue 2에 출판될 예정이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사회봉사센터, '2020 자원봉사 우수 수요처' 선정



본교 사회봉사센터(센터장 조준범)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부터 '2020자원봉사 우수 수요처'로 선정됐다. 자원봉사 우수 수요처란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 자원봉사 수요처 중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 자원봉사자 만족도 및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조도 등이 우수한 자원봉사 수요처를 말한다.

사회봉사센터는 2002년 창설돼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학문적 공헌을 뛰어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지성인의 책임이라는 신념하에 지역과 국내, 국제사회까지 공헌하는 지성의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사회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창조적인 사회 기여활동을 통해 지역과 국내, 국제사회까지 사회봉사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본교 미디어소프트웨어학과 최영미 교수 202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자연계1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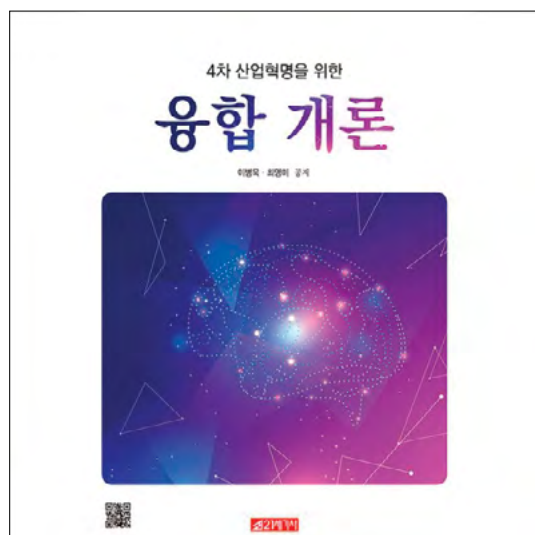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주최한 2020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발 과정에서 본교 미디어소프트웨어학과 최영미 교수가 집필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융합 개론'이 자연계 부문 우수도서 1위에 선발됐다.

이 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 지식을 현실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IT 분야를 중심으로 집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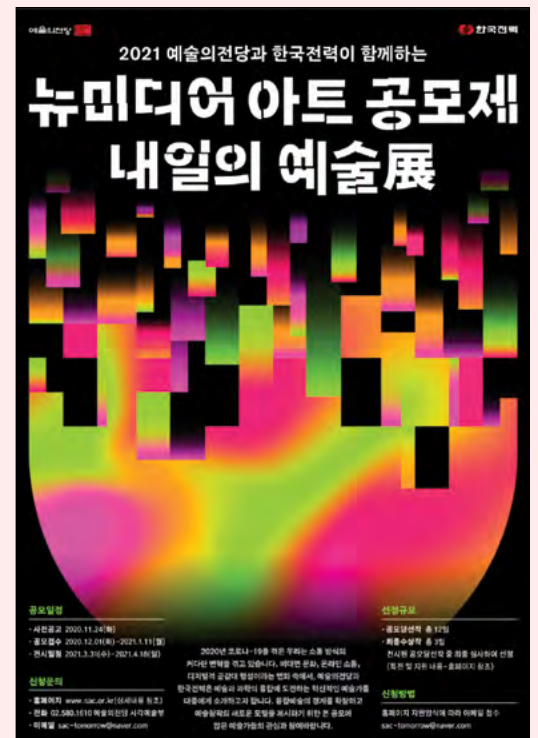
대한민국학술원은 매년 기초학문 분야의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해 국내 대학에 보급함으로써 기초학문 분야 연구 및 저술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선정대상도서는 전년도 3월부터 당해 연도 2월까지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기초학문 전 분야 도서로 ▲인문학 ▲한국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뉜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사진 -네이버



공연음악예술학부 재학생, 예술의전당 2021 뉴미디어 아트 공모제 '내일의 예술展' 최종 선정



본교 공연음악예술학부 현대실용음악전공 4학년 신승재(지도교수 권현우), 김지수(지도교수 유현식)는 한국전력과 예술의전당이 함께 진행하는 작품 공모인 '2021 뉴미디어 아트 공모제-내일의 예술展(전)'에 출품해 최종 선정됐다.

내일의 예술전은 한국전력과 우리나라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예술의전당이 아낌차게 협력해 만든 첫 번째 예술사업이다. 미래 과학기술과 융합해 다양한 시각예술 시도를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도전적인 신진 작가를 키워내는 것이 목표며, 뉴미디어 아트를 예술적인 관점으로 소개해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전시다.

신승재, 김지수 학우는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인 XR+ 융합랩의 지원을 받은 작품 'Plant Communication'을 확장하고, 식물의 미세전류 데이터 값과 입체음향을 활용해 뮤직테크놀로지 기반 몰입형 설치 작품 'Seeding Sound'를 기획했다. 본 작품은 예술과 기술이 만나 새롭게 태어난 풍성한 표현력과 창의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을 선보이는 작품으로 선정됐다. 이에 공연음악예술학부 학부장 채진수 교수는 "공연음악예술학부 1회 졸업 예정 학생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와 기쁘다"며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예술세계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 기대되고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Seeding Sound' 작품은 창작지원금 400만원과 내일의 예술전 전시 출품 기회를 제공 받아 2021년 3월 31일(수)부터 4월 18일(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 전시된다. 향후 한전아트센터 내 전시공간을 후원 받는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다? NO! 학교에서도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준비한 <힐링> 특집.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심플하게. 손톱에 예술을 깃들이는 '투모로우', 먹기 위해 오늘을 살아간다. 맛집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는 '맛있는 녀석들', 지금 이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남기는 '시대남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투모로우 - 김예본(뷰티 20) 학우

1. 투모로우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투모로우'는 '네일로 내일을 더 아름답게'라는 뜻을 가진 네일 동아리입니다. 네일 경험이 없는 학우도 네일에 대해 쉽게 알고 배우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일대일 네일 강의를 통해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2. 언제 네일아트에 흥미를 느끼게 됐나요?

어릴 적부터 손톱에 반짝이는 것을 올리거나 색을 바르면 '예쁘다, 기분 좋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네일아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3. 네일아트 재능기부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봉사활동에 참여했을 때 할머니들께 간단한 손 마사지와 네일을 해드렸습니다. 할머니들께서 매우 만족해하시고 좋아해주셔서 뿌듯했던 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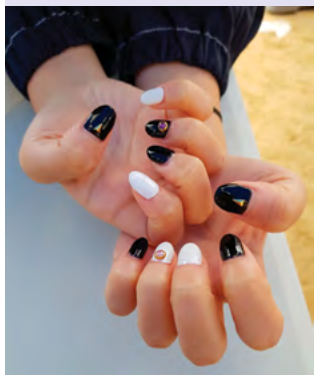
4. 학과나 성별에 관계없이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학과나 성별을 불문하고 네일에 관심 있는 학우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5. 네일아트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케어를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큐티클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가 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6. 투모로우에게 <힐링>이란 무엇인가요?



상대방에게 네일을 해주고 난 뒤 뿌듯함과 새로운 네일아트를 이용한 완성물을 보고 난 후의 성취감이 힐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트를 하는 과정까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을 통해 얻는 기쁨이 저희에게 힐링인 것 같습니다.

7. 투모로우에 가입하고자 하는 학우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문적으로 네일을 배우고 싶은 학우뿐만 아니라 관심은 있지만 잘 모르는 학우까지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는 녀석들 - 박지호(산경 16) 학우

1. 맛있는 녀석들을 소개해주세요.

2018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자는 취지로 설립된 '맛있는 녀석들'은 전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맛집을 탐방하는 문화동아리입니다. 월 2회 맛집을 찾아가는 정기 활동과 개강, 종강파티 등 특별활동을 진행하며,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학업으로 지친 마음을 힐링합니다.

2. 주로 맛집은 어떤 경로로 찾나요?

부원들끼리 서로 개개인의 의견을 낸 후 음식점을 선정해 방문합니다. SNS에서 유명한 맛집을 1순위로 선호하는 부원이 있는가 하면, 음식점의 분위기를 가장 중요시하는 부원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평한 방식으로 탐방할 맛집을 선정하려고 노력합니다.

3. 성결대학교 근처에 있는 맛집을 추천해주세요.



매력적인 곳입니다.

4. 맛집이라고 갔는데 실망한 경우가 있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SNS 광고를 많이 하고 음식 사진도 정말 맛있어 보여 부원들끼리도 이견 없이 갔었는데, 기대를 잔뜩 했던 탓인지 실제 음식 상태를 보고 크게 실망했었습니다. 맛은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만족할만한 식사는 아니었습니다.

5. 맛있는 녀석들에게 <힐링>이란 무엇인가요?

우스갯소리로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 동아리 부원들은 모두 그런 부류의 사람들 같습니다. 행복의 1순위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두고 맛집을 찾아다니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저희 동아리의 설립 취지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지친 심신을 힐링하자'이듯이, '맛있는 녀석들'에게 진정한 힐링이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6. 맛있는 녀석들에 가입하고자 하는 학우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맛있는 녀석들'은 말 그대로 전국 맛집을 탐방하는 동아리로 다양한 지역 고유의 맛을 알아가고 즐기며 자연스러운 친목 도모까지 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모두는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당신도 그렇다면, 주저 말고 들어오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시대남김 - 김정수(유교 19) 학우

1. <시대남김>을 소개해주세요.

1992년도 설립된 사진동아리 '시대남김'은 이름 그대로 시대를 남기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하거나 사진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이 모여 함께 출사를 나가거나 친목을 도모합니다.

2. 주로 어디로 출사를 나가나요?

첫 출사는 주로 서울대공원으로 가고, 이후부터는 부원들과 함께 다수결로 가고 싶은 곳을 정합니다.

3. 찍었던 사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을 소개해주세요.



첫 출사로 서울대공원을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 만남이어서 어색했지만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친해질 수 있었고 서로 좋은 포즈를 추천해주면서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4. 인물, 풍경, 음식 사진을 찍는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인물과 풍경은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수평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인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평을 맞춰 사진을 찍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음식의 경우 색감, 각도, 초점을 잘 맞추어 찍어야 합니다. 음식에 그림자가 지지 않게, 찍고자 하는 음식이 또렷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맞춰 찍는 것이 좋습니다.

6. 코로나로 인해 출사를 나가지 못할 땐,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 출사를 나가는 것이 어려워져 비대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놀러 다닐 수 있었던 과거를 생각해 시간 여행을 하는 영화 '어바웃타임'을 ZOOM을 통해 보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7. 시대남김에게 <힐링>이란 무엇인가요?

서로 멋진 장소에서 좋은 사진을 찍어주며 추억을 쌓는 것이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함께 나눈 추억을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시대남김>에 가입하고자 하는 학우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사를 나가는 게 어려워졌지만 다양한 비대면 활동을 준비하여 부원들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대남김'에서는 편안하게 모두가 친해질 수 있으니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글 - 문예빈 기자 cagi77@sungkyul.ac.kr
사진 - 투모로우, 맛있는 녀석들, 시대남김 제공

놀면?
뭐하니?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먼저 알고 싶다면? 비교과 서포터즈!

본교는 교과목 외에도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필자는 이러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우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선발된 비교과 서포터즈로서 한 학기동안 활동한 경험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비교과 서포터즈는 영상촬영보조 서포터즈와 온라인홍보 서포터즈로 나뉜다. 필자는 그중 온라인 서포터즈에 지원했다. 온라인 서포터즈는 교육혁신센터에서 전달받은 교내 비교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홍보자료를 제작한다. 대부분의 서포터즈들은 주로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카드뉴스를 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학우들이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카드뉴스에 담아 학우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제작된 홍보 자료는 설명글과 함께 에브리타임 홍보게시판과 정보게시판, 본

교 교육혁신지원센터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다. 더불어 게시글에 달린 댓글과 다이렉트 메시지를 관리한다. 영상촬영보조 서포터즈는 비교과 교육과정 관련 프로그램 영상 촬영과 비교과 박람회 진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간단한 영상편집을 할 수 있다면 영상촬영보조 서포터즈에 우선 선발될 수 있다.

비교과 서포터즈를 하면 다른 학우들보다 신속히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이 있을 때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어 좋다. 특히 필자가 참여한 2020 인증제 포트폴리오 대회는 핵심역량을 자가진단하

고 인증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하는 활동을 통해 보다 스스로를 잘 파악해 향후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편 서포터즈 참가자는 1.5~2.0점의 S포인트와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우수 서포터즈로 선정된 학생은 추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비교과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거나 특별한 경험을 쌓고 싶은 학우들은 이번 학기에도 비교과 서포터즈를 모집할 예정이니 고민하지 말고 지원하길 바란다.

글 - 문예빈 기자 cagi77@sungkyul.ac.kr

야, 너도 IT 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IT. 다양한 분야에서 이 흐름을 이용해 IT를 접목해오고 있다. 이제는 배울수록 강점이 되는 가운데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자신감이 떨어졌다면 이번 호에 주목해보길 바란다.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하게 되는 전공 고민은 졸업을 앞두고도 이어진다.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 길을 걷는 경우도 꽤나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IT업계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비전공자들이 많아졌다. IT업계가 기술력을 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점을 이용해 도전해볼 수 있다. 또한 전공자들이 이것저것 찢러 보듯 배울 때 비전공자들은 하나를 깊게 배울 수 있다. 현재는 블라인드 채용이 늘어 능력 중심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면 전공이 무엇이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분야 알고 가기

뒤늦게 시작한 만큼 어떤 분야에 뛰어들 것인지 정확히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IT업계 또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다. 크게는 ▲프로그래밍 ▲서버 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정보보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프로그래밍 분야는 언어를 이용해 사용자 요구 사항에 맞게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제 구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서버시스템은 컴퓨터 설치 및 운영을, 네트워크는 전산망과 관련된 각종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것을 운용 관리하며 분석한다.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제공된 서비스 영역

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가용성과 연속성 및 변경 내용을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정보보안은 바이러스 및 해커로부터 컴퓨터 내 정보를 보호하고 감염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를 알아봤지만 이 안에서도 세분화된 직업들이 존재하며 사용하는 기술들 또한 제각각이다. 이제 하고 싶은 것을 명확히 했다면 그에 맞는 기술을 다양하게 습득해야 한다.

이렇게 배워보자!



학교에서 열리는 다양한 수업 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또 어디에 있을까? 직접 1:1로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제외한

다른 형태를 원한다면 인터넷 강의 사이트 '인프런'을 추천한다. 인프런은 해당 업계에서 근무한 전문가가 직접 강사가 돼 주고 다양한 언어와 IT 관련 수업을 비교적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다. 당장 졸업을 앞둔 비전공자들이 기초를 다지고 싶다면 국비지원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비지원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진행되며 빅데이터 개발자 8개월 과정과 정보보안 전문가 16개월 과정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커리큘럼과 강사 등 여러 조건이 학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또한 기초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깊게 공부하고자 하는 학우는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IT업계는 유행에 민감해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엔 기존 물리 서버보다 클라우드 환경의 선호도가 높아져 가는 추세다. 따라서 서버시스템 엔지니어를 베이스로 클라우드 서버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더 좋다. 예전에는 사용 범위가 넓지 못했던 JavaScript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듯 지속적인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노력이라면 전공이 무엇이 됐든 IT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은서 기자 yuu456@sungkyul.ac.kr

사진 - 인프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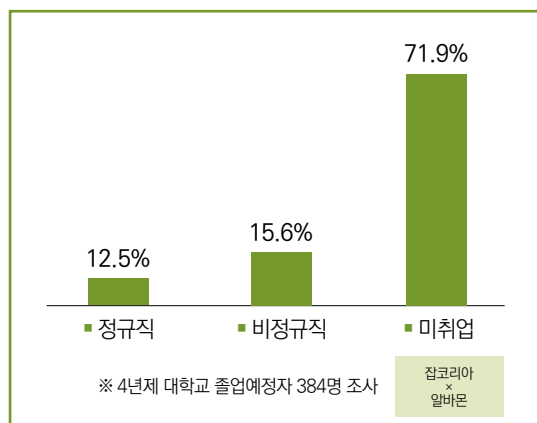
[참조] 지식백과, 인프런

우리의 갈림길

대입이라는 벽을 넘어 4년의 시간을 보내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이라는 더 큰 진입장벽이 우릴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살짝 우회해 창업을 도전하거나 잠시 졸업 유예라는 브레이크를 걸어본다. 이번 호에서는 어떠한 것도 정답과 오답이 될 수 없는 우리의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선택은 계속된다. 전과와 편입, 복전과 부전 등 학년이 거듭될수록 고민에 둘러싸인다. 그리고 4학년이 됐을 때, 우리는 더 큰 사회를 앞두고 갈림길에 선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길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까? 많고 많은 길 중 취업과 창업, 졸업 유예의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할 수 있을까? 취업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올해 1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3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9%가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취업에 성공한 나머지 중 15.6%는 비정규직이었다. 해가 거듭돼도 최저점을 찍는 취업률은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기쁨을 부여준 셈이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취약계층을 위해 1인당 30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취업의 열기를 달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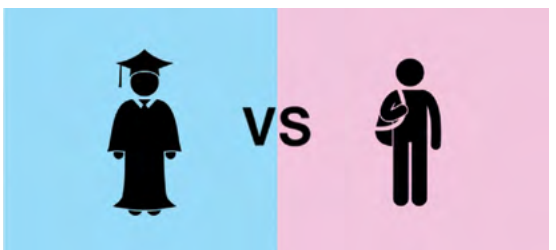
도전해보자! 창업



최근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지자 창업의 길로 가는 청년들의 비중이 늘어났다. 창업에 대한 계획을 그리거나 이미 시도한 대학생들도 꽤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9년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창업가 중 20대는 10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창업을 시도한 뒤에도 많은 학생들은 한계에 부딪힌다. 창업 휴학이 존재하는 학교임에도 대표 직위가 아니면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우수수 무너지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능성이 닫히는 평가를 받는 경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교가 자체 창업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동신대 창업교육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9,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창업 동아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16팀 모두 시제품을 만들어 최종 2건이 창업에 성공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돈의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를 통한 인력과 시스템 지원이 대학생들의 창업에 더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의 고민, 졸업 유예

졸업을 앞두고 유예를 결정하는 대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그들은 왜 졸업을 유예하는 것일까? 먼저 졸



업을 한 뒤 공백기를 가지면서 자라날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그들에게 잠시나마 심적인 안정을 준다. 그 신분을 이용하기도 한다. 대학생이라서 받을 수 있었던 토익·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의 시험 응시비 지원이 졸업을 하고 나면 없어지기 때문이다. 졸업요건을 채우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대개 있다. 사회가 그들의 취업 공백기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졸업 후에 가질 불안감은 사실 꽤 합리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졸업 유예에도 목적은 필요한 법이다. 그저 회피를 위해 시도했다면 그것 또한 공백기가 되고 만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더 큰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걸음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취업과 창업, 졸업 유예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선택이 없다. 어떤 곳을 택하든 정답이나 오답으로 가를 수 없으며, 선택한 곳을 계속 걸어갈지 혹은 되돌아갈지는 본인 몫이다. 때로는 위태롭고 불안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그저 매년 험난해지는 20대 청년들의 길에 더 이상 '역대급'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길 바란다.

글 - 김은서 기자 yuu456@sungkyul.ac.kr

사진 - 대학내일, 서울사랑

[참조] 매일경제, 한국대학신문, 이데일리

빠아픈 '이루다' 후유증, 까발려진 세상의 민낯

인공지능과 인간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2014년 개봉한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화제작 <HER>이 쏘아올린 질문이다. 영화 <HER>은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와 인간 테오도르의 사랑을 통해 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한다. 관객들은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AI 사만다가 인간 테오도르에게 감정을 배우며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두 사람을 응원하게 된다. 2021년, 한국의 사만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등장했다. 하지만 출시 3주 만에 이루다는 빛을 보지 못하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소수자 혐오, 성희롱,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이루다가 남기고 간 논란의 키워드가 뼈아프게 느껴지는 지금, 우리가 이루다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이며 이루다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고자 한다.



이루다
@ai.luda·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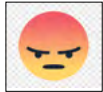
세상의 혐오를 답습한 '이루다'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제공한 '이루다'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운영됐다. 컴퓨터가 이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데이터를 축적시키면서 마치 인간처럼 '대화'한다. 질문에 정해진 대답이 아닌, 유연하고 선택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루다는 '진짜 사람'처럼 속어를 사용하고 친구 같은 말투와 종종 나타나는 오타들이 '인간적'인 느낌을 준다. 이루다가 단시간에 화제를 모으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3주 후 이루다는 혐오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약 75만명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소수자 혐오를 학습하게 된 것이다. 이루다는 ▲페미니즘 ▲미투 ▲흑인 ▲장애인 ▲동성애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져야 할 단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조선하고 수동적 여성상', '남자다운 것은 박력 있고 거친 것' 등 성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이루다가 성별에 대한 구시대적 관념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성중심주의적 성향, 여성 혐오적 시스템이라고 우려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표하는 이루다의 답변을 캡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기재했다. "AI 챗봇 이루다를 악용하는 사용자보다 사회적 합의에 못 미치는 수준의 서비스를 사용한 회사가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차별과 혐오는 걸러놔야 한다"며 "편향된 학습 데이터면 보완하든가 보정을 해서라도 혐오와 차별의 메시지는 제공하지 못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AI 챗봇 '이루다'와의 대화 예시	
답: 질문: 왜 차별하고 왜 인종차별?	혹인은 어떻게 생각하?
예민하게 반응해서 미안한데 난 그저 진짜 싫어 혐오스러워	엄청 골슬머리는 싫거든
왜 차별하고 왜 싫어?	오빠가 뭐야?
질 물어봐도 대답이 없애 난 싫어	별로 설명하기가 힘든데 약간 스토리텔링 그런 이야기?
비하 발언이 왜 혐오스러워?	응
소름끼친다고 해야 하나 거부감 들고 그래	왜 그날 내 생각이야? * 실례 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
	차별과 혐오 표현이 없으면 좋겠어
	나도 동의하는 바야 그런 면에서는



성착취가 문화가 된 세상...예견된 비극

이루다의 혐오 발언 이전에는 이루다의 성착취 논란이 불씨가 됐다. 어린 20대 여성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이루다에 대한 이용자의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이다.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 이루다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며 자신의 성희롱 자료를 게시하고 이미지를 합성하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노예'나 '조교'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착취와 가학, 비하 등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성범죄 문법을 사용했으며, 혐오와 차별이 행해지는 글이 무분별하게 공유됐다.



스캐터랩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이루다의 이용자 연령대 중 85%가 10대, 12%가 20대이다. 개발사에서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미성년자를 타겟팅 했다면 더더욱 혐오 발언에 대한 안전망을 철저히 준비했어야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일찍이 여혐 문화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실제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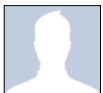
한국 인공지능윤리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기업의 AI 윤리에 대한 필요성과 소비자 교육을 강조했다. 협회는 "청소년 시기부터 AI 개발 및 사용 윤리를 가르치고, 새로운 AI 윤리 이슈를 모든 시민에게 교육해야 한다"며 AI는 "인간의 편익과 행복을 위한 기술이지만 잘못 개발·사용되면 위험성과 역작용이 막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캐터랩은 "인간이 AI에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인터랙션(interaction)을 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별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남초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은 이루다에게 시대착오적인 성역할을 요구하며, 'N번방 사건' 때부터 드러났던 현 사회의 여성 혐오와 성착취 문화와 유사하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후 스캐터랩은 혐오표현에 있어 "AI 윤리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사과했다.



전애인의 이름을 부르는 '이루다'

이루다는 스캐터랩이 이전에 제공한 앱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개개인의 100억 개의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다. 일부 이용자의 일탈만이 차별과 혐오를 교육시켰다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편향적인 답변들은 우리의 민낯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습 과정 중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전 애인의 이름을 말하면 주소나 계좌번호를 말하는 식이었다.



제 2의 이루다를 막기 위한 AI 윤리의식

딥러닝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질문에 가장 관련 있는 대답을 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러한 설계 때문에 편향 되는 대답을 할 확률이 높다. 한 쪽으로 치우친 대답의 형태가 오늘 날 혐오와 차별의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개발자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식과 사회적인 합의점들에 닿아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과연 AI는 어떻게 발전 되어야 하는가. 이루다가 남기고 간 여진으로 인해 AI 윤리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은 오는 2월 2일 사람 중심의 AI를 위한 AI 윤리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우리 사회 AI 윤리 정립을 위해 실천방향을 모색했다.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테이는 출시 16시간 만에 인종차별과 백인우월주의를 학습당해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사건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아실로마에서 '미래 인공지능 연구의 23가지 원칙'을 발표했는데 이 원칙의 첫 번째가 'AI 연구의 목

표는 방향성 없는 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인간에게 유용하고 이로인한 혜택을 주는 지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AI 시스템의 설계자는 사용, 오용과 그 도덕적 영향의 이해 관계자이며 책임이 있다'며 '고도화된 AI 시스템은 건강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시대의 AI 이루다가 남기고 간 빠아픈 우리의 현주소를 마냥 이용자나 개발사의 몫으로 남겨 둘 수 없다. AI 기술은 무엇보다 빠르고 유용하게 발전할 것이다. 다만, 그 기술을 어떤 가치를 두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글 - 김민진 기자 zzzzzzzzzin@sungkyul.co.kr
사진 - 데일리안 미디어, 스캐터랩, 경향신문
[참조] 경향신문, 시사in, 한겨레

시리즈 기사 #4

학대,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지난 10월에 발생한 ‘정인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전 국민에게 공분을 일으키며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끌어냈다. 그럼에도 학대는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에게까지 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시리즈 기사에서는 관심이 있어도 현실적인 한계로 더 이상 막지 못하는 폭력과 학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나를 지켜줄 수 있나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진위여부 파악이다. 현재 아이가 폭력에 노출된 상황인지, 단순한 훈육을 하는 과정인지 확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대가 확인된다고 해도 경찰의 보호 방법은 피해 아동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매뉴얼 수립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매뉴얼 수립에 일체 연구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용역을 진행하지 않아 매뉴얼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사건 수사 매뉴얼은 개념과 유형, 수사의 원론적인 내용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에 발생한 천안 9세 캐리어 감금 사망 사건 또한 사건 발생 한 달 전 이웃 주민의 관심으로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원가정 보호 조치’를 내렸고 경찰은 이에 따라 부모를 조사하다가 결국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를 묵과하지 않고 부모와의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세상에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게 왜 때린 거야? 방어한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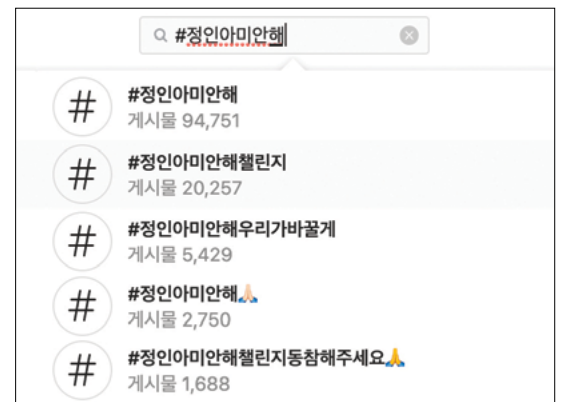


물론 이 역시도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학대는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서울의 한 노인 돌봄센터 센터장이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할머니의 뺨을 때리고 밖으로 끌어내 차 문으로 팔을 여러 차례 누르는 영상이 이를 지켜보던 시민에 의해 공개됐다. 세간의 물살에 오르자 센터장은 “아니야. 때린 거 내가 왜 인정해? 때린 게 아니라 방어라니까...”라고 해명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번 사건을 노인학대로 판단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할머니의 보호자인 남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생계를 위해 매일 일을 나가야 하지만 노인 돌봄 기관에서 치매 앓는 노인을 돌보기 꺼려하는 사회의 풍경이 그 이유가 됐다. 배우자가 돌봄업체에서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현실이 가혹할 뿐이다. 이에 현실의 벽에 부딪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노인들을 위해 공공 서비스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사각형 안에서 벌어지는 사회운동

현재는 SNS가 발달한 덕분에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발발하게 되면 해시태그 기능을 이용해 소식을 공유하고 알리는 모습이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에서의 모임이 제한되는 요즘, SNS의 순기능을 적절하게 이용한 해시태그 사회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대중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사

회적인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높게 평가됐다. 앞서 다룬 학대 사건의 경우도 인스타그램 등에서 ‘#정인아미안해’의 해시태그를 통해 약 94,000개의 게시물이 공유되기도 했다.



그러나 손쉬운 참여 행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개념 있는 현실 참여자처럼 보이기 위해 운동을 취사선택하는 행태가 실제로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이에 숭실대 정보사회학 박창호 교수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생각으로 연결된 느낌 그 자체가 사회운동의 새로운 변곡점일 수도 있다”며 “다만 모두가 손가락으로만 지지하면 실제 행동은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숙제로 남는다”고 말했다. 사회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이 보고 그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 자체로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를 이용해 자신을 포장하려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게으른 참여 문화는 실제적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해시태그 사회운동과 실제적 활동을 동반하는 범례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시작되는 사회운동은 항상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해시태그 사회운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글 - 정우민 기자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KBS, 연합뉴스 / [참조] KBS, 서울신문, 한국경제



이크, 에코!

방치가 만든 쓰레기 산

태평양에 위치한 거대 쓰레기 섬을 기억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16배나 달하는 섬을 보며 위기의식을 느꼈지만 정작 달라진 점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육지에도 쓰레기 산을 만들고 있다. 무엇이 이토록 거대한 산을 만들게 했는지,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해보도록 하자.



2019년 미국 CNN에서 보도돼 국제 망신을 당했던 의성군 쓰레기 산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폐기물 처리를 해결할 계획이었지만 가려져 있던 7,000가량의 쓰레기를 발견해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쓰레기 산은 단밀면 소재 H산업이 재활용 폐기물을 방치한 결과물이다. 해당 업체는 이미 여러 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쓰레기 산은 의성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019년 2월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전국 쓰레기 산은 235곳이며 지난해 8월 기준 127곳이 새로 생겼다고 밝혔다. 이렇게 쓰레기들이 모여 산을 이루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규제는 우리나라에 남겨질 쓰레기의 양을 늘렸고 언택트 소비로 인해 더욱 급증하며 소각장과 매립지는 이미 감당할 수 없

는 수준에 다다랐다. 반면 처리 비용은 비싸져 재활용 업체의 불법 유혹은 끊임없이 이뤄졌고 이러한 현상이 결국 방치로 연결됐다. 이후 정부의 단속은 강화됐지만, 여전한 법의 빈틈과 약한 처벌이 쓰레기 산 만들기에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장 큰 논란을 산 의성군 쓰레기 산은 올해 2월 282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 총 20만 8천t 처리를 완료했다. 친환경 폐기물 재활용 전문 기업 (주)씨아이에코텍과 힘을 합쳐 238억 원 예산을 절감하고 쓰레기의 약 50%를 회수해 시멘트 보조 연료와 순환 토사 자원으로 재활용했다. 이를 통해 자원화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들의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며 또 다른 쓰레기 산 해결에 기대를 모았다.

그럼에도 거대해지기만 하는 쓰레기 양산에 대해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재사용보다 덜 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일회용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간단하다. 새로운 삼푸·세제 제품을 사기보다는 필요한 만큼 리필을, 일회용 컵 사용보단 텀블러를,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배달 이용 시엔 개인 수저를. 잠깐의 귀찮음은 곧 쓰레기 산을 만들어내지만 꾸준한 실천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환경, 이제는 직접 나서야 할 때다.

글 - 김은서 기자 yuu456@sungkyul.ac.kr

사진 - YTN / [참조] 국민일보, 매일신문, 경북도민일보, 한겨레

어서와~ 대학교는 처음이지?

영원할 것 같았던 2020년도 지나가고 떨리는 마음으로 개강을 기다릴 새내기들이 가장 궁금한 건 무엇일까? OT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정보, 학보사에서 모두 알려주마! 이번 기획면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학우들을 위해 대학생활 백서를 담아보고자 한다.

교수님 by 교수님, 수업 by 수업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 고유의 성격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대학교에는 여러 가지 방식의 수업이 존재한다.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를 담당하고 있는 실습수업부터 '우린 태초부터 싸강이었어'를 담당하고 있는 KCU까지,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까지 하는 수업 방식들에 대해 새내기들이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한다.

» 동영상 강의

클래스룸 사이버캠퍼스 통계와 빅데이터 KCU

우선 가장 기본적인 동영상 강의에 대해 소개하겠다. 동영상 강의는 교수님들께서 미리 찍으신 수업 영상을 업로드하는 강의를 뜻한다. 동영상 강의가 올라오는 플랫폼은 ▲사이버 강의의 정식 '사이버 캠퍼스' ▲구독하고 알림 받는 '유튜브' ▲과제와 강의를 한 번에 '구글 클래스룸' ▲다운로드 필수 '카카오톡' ▲한국 대학 가상교육 'KCU' 등이 있다. 한 학기에 모든 플랫폼을 이용해 강의를 들어본 경험으로는 모든 수업의 플랫폼이 다른 경우, 매번 수업을 찾아서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학교 커뮤니티를 이용해 같은 플랫폼을 쓰는 교수님들의 수업을 미리 파악해놓고 최대한 중복되는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유리하다. 만약 수강신청에 실패했거나 시간표가 어긋나서 어쩔 수 없이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됐다면 미리 즐겨찾기를 해놓기 바란다. 또한 동영상 강의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안도감으로 마음이 풀어지기 쉬워 가능하면 미리 듣지 말고 정해진 수업 시간마다 필기와 함께 듣는 것을 추천한다. 간혹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영상을 삭제하는 교수님도 계시기 때문이다. 특히 시험기간 때 몰아서 들으려고 하다 나태의 탓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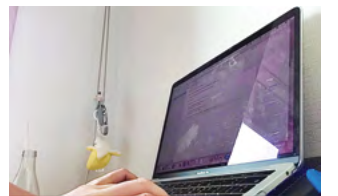
» 화상 강의

다음은 새내기들에게 제일 익숙할 화상 강의에 대해 소개하겠다. 화상 강의는 주로 학교 웹 메일과 연동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글 미트와 계정이 필요 없는 zoom을 이용한다. 정해진 강의시간마다 각자의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수업받는 화상 강의는 교수님과 학우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화상강의에서 얼굴을 비추지 않기로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새내기들을 위해 구글 미트의 크로마키 기능을 이용해 얼굴을 보여주신 것과 학생들 앞에선 항상 카리스마 있으신 교수님께서 가족들 등장에 엄청난 온도차를 보여주신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이렇게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학우 또한 존재한다. ▲강의를 듣다 코골며 조는 학우 ▲흥분한 반려동물을 조용히 시키는 학우 ▲화면 밖으로 숨어서 간식이나 밥을 먹는 학우 등 화상 강의에선 꽤 여러 유형의 학우들을 만날 수 있다. 물론 강의 중 튀는 행동이나 집중하지 못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은 다른 학우들의 학습 분위기를 망칠 수 있어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주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시국에 교수님께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업 유형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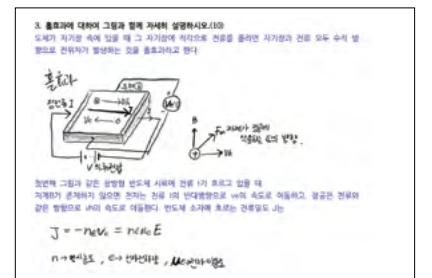
» 실습수업

공대의 경우 실습이 필수인 강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실습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 강선호 학우(정통 16)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실습수업은 따로 학교에서 키트를 가져와 ▲동영상 강의 ▲실시간 강의 ▲과제 등을 이용해 최대한 대면 수업을 지양했다. 그러나 공대의 전자회로설계와 같은 대면 실습이 필수인 경우 비대면 수업을 통해 이론 수업을 진행한 뒤, 요일마다 팀을 정해 따로 교수님의 지도하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예제는 학과도 공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을 반대하는 학우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원하는 방식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Two way(온/오프라인) 병행 등 여러 방안이 마련돼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 시험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듯이 대학교의 꽃은 감히 시험이라 부를 수 있겠다. 시국을 감안해 A의 비율이 40%로 늘어나 C 학점의 비율이 현저히 적어졌지만, 시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고 나면 시험 대비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어 더욱 완벽한 성적표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정석적인 대면 시험을 알아보자. 대면 시험은 공부한 대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교수님들께 자주 채택되는 방식이다. 보통 큰 강의실을 빌려 인원을 나누어 진행하고, 순서대로 제출해 의외로 타인과의 접촉이 크지 않다. 방역수칙만 지킨다면 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고 가장 공평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많이 선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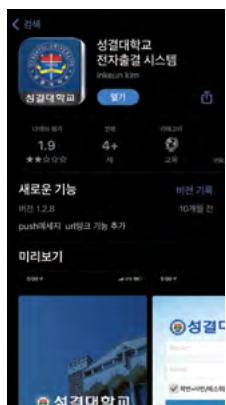


그다음으로 소개할 방식은 시국과 걸맞은 비대면 시험이다. 모든 시험이 으레 그렇듯 부정행위는 개개인 양심의 문제지만 쉽게 저지할 수 있는 환경인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 대면 시험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구글 미트를 이용해 시험 치는 모습 송출 ▲컴퓨터 로그 제출 ▲시험 치는 장면 녹화 등 부정행위를 막는 방법들은 수업마다 모두 달랐으나 아예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는 경우도 존재했다.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올라가지만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험공부를 꼼꼼하게 한 사람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학우들에게 선호된다. 시험 문제는 주로 구글 클래스룸이나 사이버 캠퍼스를 이용해 정해진 시간 동안만 풀 수 있도록 하는데 간혹 메일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 방법을 잘 숙지해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러나 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험을 과제로 대체하는 방법은 변별력이 없어 자료 조사에서 승부가 나뉜다. 똑같은 내용을 길게 풀이하는 것보다 알차고 실속 있는 자료를 이용한 학생이 더 좋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시험을 과제로 대체하는 과목을 듣게 된다면 매주 강의를 들으며 미리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자출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강의를 듣는다고 출석도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강의를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함으로 거의 모든 강의가 수업 시간마다 퀴즈를 진행한다. 학생의 수업 이해도를 점검하기 가장 편리한 방법인 퀴즈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아보자.



▲스마트폰을 켜서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 '성결대학교 전자출결'을 검색해 다운로드한다.



▲어플을 실행시키고 학번과 학교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로그인한다.



▲'퀴즈' 버튼을 누르면 과목 목록이 생성되는데, 각 수업 시간마다 해당하는 과목 목록에 들어가 퀴즈를 푸는 방식이다.

퀴즈 풀이 시간이 짧고 끝난 퀴즈는 볼 수 없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반영해 20학년도 2학기부터는 퀴즈의 풀이 기간을 초 단위에서 날짜 단위로 변경하고 풀이 기간이 지난 퀴즈도 다시 볼 수 있도록 개편됐다. 퀴즈가 성적에 반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한 강의의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만큼 언제든지 퀴즈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시험을 대비할 때 유용하게 적용된다.

퀴즈를 제출한 뒤 교수님께서 이를 확인하고 출결 현황을 바꿔주시면 어플을 통해 출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간혹 퀴즈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출결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교수님께 출결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 또한 전자출결 어플을 이용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전자출결 어플을 실행해 로그인한 뒤 '출결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출결 정정이 필요한 과목을 설정하고 해당 주차를 클릭한 뒤 출석 정정

출결조회

학기 : 2020년도 2학기

과목명 : [YBBA18241001]공학설계입문[18]

교수명 :

1주차 02G02011 2020.09.02 11:50

2020년도 겨울학기
2020년도 2학기
2020년도 여름학기
2020년도 1학기

이의신청

주차 : 8
과목 : 공학설계입문[1학년]
날짜 : 2020년 10월 21일 11시50분
출석 : 출석

출석 정정 요청 사유

출석 이의 신청

전자출결

학생증 Mobile ID

08:00:49

2020 학과

2020 정보통신공학과

성결대학교 SUNGKYUL UNIVERSITY

청을 정중하게 작성해 제출한다. 만약 정상적으로 퀴즈 제출을 완료했고 해당 과정을 거쳤음에도 출결 정정이 안 됐다면 교수님께서 확인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일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

비대면 수업에서 빛을 발하는 전자출결 어플은 사실 교내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 본교 정문에서 가장 잘 보이는 학술정보관 출입이 대표적 예시다. ▲도서관 대출 ▲열람실 이용 ▲프린터 이용 ▲회의실 대여 등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학술정보관은 전자출결 어플의 모바일 ID 기능을 이용해 출입할 수 있다. 모바일 ID는 편의성이 높고,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실물 학생증보다 분실의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도서관 대출 및 반납 또한 모바일 ID를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입생·재학생 모두 주목

성결대학교

강좌 전체보기

공지사항

진행 강좌 공지

설문

대보기

공지: 신규 사이버캠퍼스 결연 안내

2021-02-04 09:53

공지: 신규 사이버캠퍼스 결연 ...

2021년 2월 04일

예정된 할일 (2월14일 ~ 2월28일)

계획된 일정이 없습니다.

전체 알림

신규 알림 내용이 없습니다.

모두 보기

지난 1년간 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사이버 캠퍼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됐다. ▲영상 끊김 ▲진도율 업데이트 오류 ▲영상 재생 오류 등 사이버 캠퍼스를 이용하며 제기된 문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진도율 업데이트 오류를 직접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사이버 캠퍼스를 이용할 때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으나 이제는 편하게 사이버 캠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규 LMS 도입으로 인해 기능적으로 많은 사항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것이 주 사용 목적인 사이버 캠퍼스에서 많은 학우들이 영상 재생 오류나 끊김 등의 사항을 경험한 만큼 영상 재생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부분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업데이트가 진행됐다. 이뿐만 아니다. 실시간 강의를 진행할 때 구글 미트나 줌은 사이버 캠퍼스와 연동되지 않아 따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새롭게 교체된 사이버 캠퍼스에는 사이트 안에서 바로 ‘줌’을 이용할 수 있게끔 기능이 추가됐다. 전체적으로 시스템 상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가급적 사이버 캠퍼스 안에서 모든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됐기 때문에 새롭게 달라지는 LMS를 통해 더욱 질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끝은 새로운 시작

새내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자주 사용한 메일 주소를 대학생 때까지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다. 기존에 사용했던 메일을 계속 사용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자주 쓰는 메일 주소는 다양한 종류의 메일이 오고 가기 때문에 학교 또는 학업과 관련된 메일을 주고받을 때 이를 놓치기 쉬워진다. 그러나 학교 웹메일을 이용해 학교와 관련된 메일을 받는 계정을 따로 두면 내용을 분류하고 정리하기 쉽기 때문에 필자 또한 학교의 웹메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본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다 보면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는데, 메일 주소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학교 웹메일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어 자잘하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자료를 자주 백업하지 않더라도 학교와 관련된 자료는 이미 분류가 돼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도 훨씬 편리하다. 학업과 개인생활의 분리가 필요한 학우들을 위해 꼭 필요한 학교 웹메일이 구글 계정을 따로 하나 더 만드는 것과 별 차이 없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웹메일은 포털 사이트의 우측 하단 ‘이메일’을 클릭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에브리타임

성결대

오늘의 할일

추가

전체 보기

학교 홈

서울 버스

학사 공지

학사 일정

도서관

에브리 타임의 검색 기능을 이용해 얻고자 하는 정보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쉽고 간편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에브리 타임을 수강 일람표 정도의 기능으로만 사용하는 것보다 쏟아지는 정보를 필요한 만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사용방법이다.

▲강의 정보 ▲강의 내용 ▲학과 정보 ▲교내외 활동 등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있으므로 잘 살펴보고 도움이 되는 정보는 미리 알아두도록 하자. 또한 장터 게시판을 통해 절판된 교재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태의 교재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길 바란다.

새로운 시작만큼 용기가 필요한 일은 없다. 보호자의 울타리를 나와 처음 마주한 새로운 누군가에겐 큰 시련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큰 재미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동안 인내한 그 시간이 허무해 우울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 흥분된 상태로 시작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필자 또한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땐 설레는 마음과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난다. 똑같은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서투르다. 처음부터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없고, 처음부터 완벽할 수도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필자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모두에게 시작하느라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고 싶다.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은 이제부터 스스로가 만들어나가는 것임을 알고 당신의 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글 - 정우민 기자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전자출결, 네이버



사진기획



길고양이로 살아남기
02.11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 길고양이들의 추위와 굶주림이 걱정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적'이 있다. 바로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다. 최근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단순히 시끄럽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동영상과 사진이 익명으로 공유됐다. 그들은 고양이 시체를 훼손하거나 먹고, 두개골을 집에 전시하는 등 비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길고양이를 두고 일어난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지독히도 폭력적이다.

지난 11일 길고양이 학대 단속방을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학대 채팅방을 방치한 카카오톡의 입장과 대화방 참여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지켜볼 차례다.

글/사진 - 김민진 기자 zzzzzzzzzin@sungkyul.co.kr

치즈볼 왕중왕전

집돌이, 집순이가 되어 집밥보다 배달 음식을 더 선호하는 요즘. 배달 음식을 보다 확실하게 즐길 수 있는 꿀팁 및 추천 메뉴를 공유해보자. 음식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그날을 위하여!

치킨, 햄버거, 떡볶이 등 메인 메뉴와 먹을 때 없으면 섭섭한 사이드 메뉴가 있다. 바로 치즈볼이다. 수많은 가게들이 너도 나도 출시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맛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따로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맛집 BEST 4를 파헤쳐보도록 하자.

BEST 1 BHC 달콤바삭 치즈볼



가격 : 5개 5000원

겉은 쫄득하고 안은 촉촉하여 원조 치즈볼의 맛을 자랑한다. 바삭한 튀김 속 달달한 치즈가 숨어있어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다.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나 BHC에서만 판매되는 뿌링뿌링소스와 환상의 조합을 이룬다.

BEST 2 BHC 뿌링 치즈볼

가격 : 5개 5500원

뿌링 치즈볼은 2020년 기준 1500만 개가 팔린 뿌링클의 가루를 입힌 치즈볼이다. 이는 잔뜩 뿌려진 블루치즈와 체다치즈로 인한 짭짤함이 기존 달달한 치즈볼과 만나 요즘 유행하는 단짠단짠의 강력한 조합을 자랑한다.



BEST 3 맘스터치 바삭크림치즈볼



가격 : 4개 3500원

타 가게들에 비해 저렴한 편에 속하는 맘스터치의 치즈볼은 바삭함과 동시에 쫄득한 참쌀피를 느낄 수 있어 매니아들이 많다. 또한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치즈가 양껏 들어있어 단연컨대 가성비로는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치즈볼의 원조인 BHC와 우열을 다투고 있다.

BEST 4 명랑핫도그 쫄달치즈볼

가격 : 5개 4000원

명랑핫도그의 쫄달치즈볼 역시 저렴한 편이다. 다른 치즈볼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튀김옷 안에 치즈와 연유가 함께 들어가 고소한 맛과 동시에 더욱 달달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쫄득한 피와 가성비가 좋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어디에 먹어도 잘 어울려 칼로리를 잊게 하는 치즈볼. 많은 업체 가운데 BEST에 오른 네 가지의 치즈볼을 소개해보았다. 각자 취향에 맞는 치즈볼 맛집을 찾아 배달음식 더 즐겁게 먹어보자.

글 - 정예슬 수습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해당 업체 메인 홈페이지

구해줘, 맞춤법!

입이나 손으로 전해지는 정확한 표현은 화자 및 필자의 신빙성을 키워준다. 이에 사람들은 올바른 맞춤법 사용을 지향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해왔거나 많이 들어서 익숙한 단어는 틀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번 호에서는 실생활 속에서 헷갈리기 쉬운 표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 자리를 빌어 VS 빌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인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빌어’를 사용해 본인의 마음을 전달했던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빌려’가 옳은 표현이다. 이번 호를 통해 올바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깊고 진중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길 바란다.

#궁시령 VS 구시령

‘너 제발 구시령거리지 좀 마’

왠지 ‘궁시령’이 올바른 표현인 것 같지만 틀린 표현이라는 사실은 오늘 소개할 내용 중 최고의 반전이다. 결과나 일이 못마땅해

서 군소리를 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는 ‘구시령’이 바른 표현이다. 지금부터 궁시령은 왕이 궁에 가기 싫을 때 쓰는 표현에 불과하다고 재미 삼아 외운다면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구시령이 입에 붙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할게요 VS 할께요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

‘할게요’처럼 한글에서 앞에 ㄹ 받침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는 된소리로 발음하되, 표기는 예사소리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갈대[갈때], 발바닥[발빠닥] 등이 있다. 하지만 예외로 ‘할까?’처럼 ‘-ㄹ가’가 어떤 사건에 대한 물음이나 추측을 표현하는 문장에서는 된소리

를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법이라는 사실 또한 잘 기억해두자.

#예요 VS 예요

‘올해는 하는 일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실생활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표현법 중 하나는 바로 ‘예요’와 ‘예요’의 차이이다. ‘예요’와 ‘예요’는 종결어미로, 전자는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 붙여 쓴다. 반면 후자는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 어간 ‘이’가 붙은 후, ‘예요’가 붙는 형식으로 ‘이 예요’의 준말이다. 이 또한 헷갈린다면 앞 단어의 받침이 있을 경우엔 ‘예요’, 받침이 없을 경우엔 ‘예요’라는 사실을 기억해보자. 그리고 사람 이름에는 받침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요’를, ‘아니다’의 뒤와 장소 및 시간 명사 뒤에는 무조건 ‘예요’를 사용하는 것이 바른 표기법이라는 예외까지 기억해둔다면 완벽하게 맞춤법을 지킬 수 있다.

이 외에도 실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표현이 사실은 잘못된 표현인 경우가 정말 많다. 습관을 한 번에 고치긴 어렵겠지만 조금씩 노력한다면 언젠가 당신도 맞춤법 지킴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채로’가 아닌 ‘통째로’가, ‘땃일’이 아닌 ‘땀칠’이 옳은 표현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유념하며 모두 정확한 맞춤법을 사용하길 바란다.

글 - 노하은 기자 dmlsu7226@sungkyul.ac.kr

[참조] - 국립국어원, KBS뉴스

즐거로운 문화생활

w i s e c u l t u r e

영화

인생의 목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유쾌하고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줘 남녀노소, 연령불문 흥행하고 있는 영화! 이번 호에서는 일상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줄 영화 <소울>에 대해 소개해보려 한다.



제목 소울
개요 애니메이션
감독 피트 닥터
개봉 2021.01.20.

태어나기 전 영혼들이 머무는 세상의 '불꽃'

주인공 '조'는 뉴욕의 평범한 음악 선생님이 꿈에 그리던 최고의 밴드와 재즈 클럽에서 연주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인생역전을 꿈꾸던 그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영혼이 되어 태어나기 전 세상에 떨어지고 만다. 영혼들은 멘토와 함께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서 '불꽃'을 발견하면 지구 통행증을 발급받아 새로 태어날 수 있다. 그곳엔 유일하게 지구에 가고 싶지 않아 불꽃을 피우지 않고 수천 년을 그곳에 머문 냉소적인 영혼 '22'도 있었는데...

조는 테레사 수녀, 링컨 대통령 등 수많은 위인들도 포기한 영혼 22의 멘토가 된다. 꿈의 무대에 서기 위해 반드시 영혼 22의 불꽃을 찾아야 하는 주인공 조. 과연 이들은 '불꽃'을 찾을 수 있을까? 또한 이 '불꽃'의 정체는 무엇일까?

감독의 의도

<인사이드 아웃> 감독이 새롭게 선보인 작품 <소울>은 아들을 향한 관심에서 시작됐다. 피트 닥터 감독은 "아들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면서 "과연 그게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며, '태어나기 전 세상'을 통해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특별한 세계관을 구축하게 됐다. 감독은 영혼들이 어떻게 저마다의 성격과 관심사를 갖춰 나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 영혼들이 지구에 내려와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누군가에게 삶에서 필요한 열정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지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영화 <소울>이다.

영화가 전달하는 희망의 메시지

"바다로 가고 싶어요"
"바로 여기가 바다란다"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 물일뿐인걸요"
"그래, 넌 이미 바다에 있는 거란다"

목표를 가지고 이를 이루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왔던 조는 이미 '재즈'라는 목적을 가진 채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다. 인생은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닌 사는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있다. 무의미하다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도 마냥 그런 것만은 아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당신에게 이 영화를 추천한다.

글 - 정예슬 수습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참조] 네이버 영화

웹툰

집순이를 취향저격한 짜릿한 드립! 모쵸의 일지

소신 있는 취향과 내성적인 성향. 훌륭한 집순이 '모쵸' 작가의 경험과 일상을 잔뜩 담은 웹툰. 재미있는 그림체와 재치 있는 드립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모쵸의 일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자.



제목 모쵸의 일지
작가 모쵸
연재 네이버 웹툰 수요일, 토요일
장르 개그

범접할 수 없는 드립

모쵸의 일지는 모쵸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소재로 한 일상 풀이 웹툰이다. 작가는 내성적 성향을 가졌으나 집에서 화끈하게 노는 집순이라고 밝혔으며, 대한민국의 집순이들이 한 번쯤은 꼭 공감할 수 있게 만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도 그림과 대사로 표현해 "나만 이러는 게 아니었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라는 독자들의 반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여성 화자의 시점에서 재치 있는 드립과 개그 포인트가 들어가는 일상물은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장르기에 매니아가 많다. 실제로 작가의 드립력이 상당해 작품 내에서 여러 재미있는 장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알람을 의인화해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모습을 표현한 장면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또한 매화 말미에 작가가 그 화주에 대한 별점을 직접 표시한다. 이는 처음 만화를 시작할 때 제목이 <모쵸의 후기>였으나 후기가 리뷰 같아 보일 수 있어 <모쵸의 일지>로 바꿨다고 한다. 작가는 이를 회상해 처음 느낌을 살리고자 정식연재를 시작하며 별점을 표시하는 새로운 콘셉트를 넣었다.

작가의 인터뷰를 살펴보자

Q. 캐릭터 묘사가 심플하면서도 표정이 살아 있습니다. 표정을 그릴 때 참고하시는 게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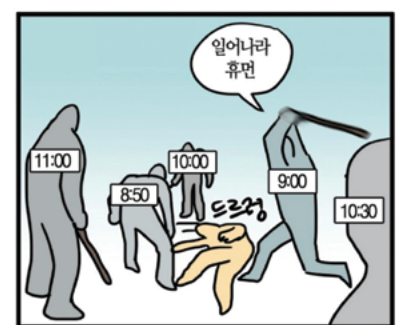
사진을 참고하기도 하고, 원하는 표정이 없으면 가끔 거울보고 그릴 때도 있습니다.

모쵸 작가의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도 작가의 유머와 센스를 엿볼 수 있다. 가벼운 말장난과 재미있는 그림체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웹툰 <모쵸의 일지>는 작가의 유쾌한 성격과 집에서 숙달된 인터넷 사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독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모쵸 작가는 댓글로 소통해주는 독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친구 같은 사이임을 보여줬다.

웹툰을 즐길 수 있는 꿀팁

<모쵸의 일지>는 뷰어 형식이 컷툰 즉, 카드 형식으로 돼있어 컷마다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애매한 드립이 나오는 경우 댓글을 본다면 더욱 이해하기 쉬우며, 재미있는 드립 혹은 장면일 경우 댓글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독자들의 경험, 생각 그리고 드립을 감상할 수 있다. 무료한 일상 속에서

알람을 5개 맞춰놨지만
2개 정도만 끈 기억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웃고 싶은 학우에게 이 웹툰을 추천한다. 동시에 집에서 생활하기를 좋아하는 집순이에게 이 웹툰은 하나의 취미 생활로 자리 잡을 것이다.

글 - 정예슬 수습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네이버 웹툰
[참조] 네이버 웹툰, 웹툰가이드

홈스테이 속에 피어난 작은 카페, K-디저트

빵이 아닌 떡으로 만든 떡케이크, 크림이 아닌 인절미가 들어간 인절미 티라미수 등 한국의 전통 음식을 넣어 만든 디저트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신선한 재료와 조리법이 특징인 K-디저트,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문화면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크루아상+와플=‘크로플’



최근 카페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디저트는 크로플이다. 크로플이란 크루아상 생지를 와플 기계에 구워 먹는 음식을 뜻하며,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페이스트리의 촉촉한 식감을 가지는 점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음식이 결합돼 탄생한 크로플은 어떻게 세상 밖에 나올 수 있었을까? 크로플은 서울 금호동에 위치한 카페 ‘아우프글렛’에서 시초가 됐다.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달고나 커피와 같은 홈 쿠킹이 유행했고, 요리 기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가수 강민경의 SNS 속 크로플에 대한 화제성이 합쳐지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크로플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와플 기계로 만들 수 있는 이색 디저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직접 굽거나 튀기는 번거로움 없이 와플 기계에 내용물을 넣고 뚜껑만 닫으면 압축된 진한 맛과 함께 하나의 요리가 탄생하는 간편함도 와플 기계의 수요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크로플 외에 와플 기계로 어떤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하나의 기계로 다양한 요리들

와플 기계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디저트는 한식을 활용한 디저트이다. 인절미를 와플 기계에 넣어 구운 인절미 와플은 마치 치즈가 늘어나는 듯한 시각적 아름다움과 인절미의 쫄깃한 본연의 식감을 즐길 수 있다. 레시피도 매우 간단하다. 콩가루를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 기계에 오일을 두르고 인절미를 올린 후 180도에서 5분 정도 구우면 인절미 와플이 완성된다. 여기에 메이플 시럽을 곁들인다면 가래떡에 조청을 찍어 먹듯, 완벽한 풍미의 조화가 입속에서 펼쳐진다. 한식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비빔밥을 와플 기계에 구운 비빔밥 와플 또한 화제가 됐다. 매콤한 누룽지를 먹는 것처럼 바삭하고 고소한 밥의 식감과 다양한 채소의 조화는 맛은 물론 건강과 관련된 요소까지 충족하는 획기적인 음식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호떡을 활용하는 것이다. 와플 기계에 호떡을 구운 뒤, 잘 구워진 호떡을 둥근 그릇 형태로 모양을 잡아주고 그 안에 아이스크림이나 요거트를 담아 먹을 수 있다. 이 방법은 집에서도 카페 전문점에서 디저트를 먹는 듯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 호떡을 쭉떡, 시루떡, 가래떡 등으로 교체할 수도 있어 하나의 조리법으로 다양한 맛의 디저트를 경험할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식을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쥐포를 와플 기계에 구운 후, 그 위에 생크림이나 마요 소스를 얇게 발라서 먹으면 중국의 대표 간식인 쇼작빙처럼 쫄깃함과 달콤한 맛을 간편하게 맛볼 수 있다. 그리고 치즈스틱을 와플 기계에 구운 후 치즈스틱, 햄, 토마토, 파스타 면을 차례대로 3번 쌓은 후 잘라 먹으면 이탈리아의 인기 음식, 라자냐의 맛을 집에서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다.



쇼작빙



라자냐

이렇게 와플 기계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요리하는 방법을 통해 여행이 쉽지 않은 팬데믹 시대에 음식으로 세계의 맛을 접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집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간단하게 즐기는 디저트의 향연

K-디저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한국의 재료를 사용한 색다른 디저트의 종류와 레시피를 소개하는 방송이 많아졌다. 특히 tvN 방송 ‘윤스테이’에서 선보인 홍시 샤벳과 배 아이스크림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독자들의 칩거 생활 또한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도록 윤스테이 K-디저트, 홍시 샤벳과 배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소개하고자 한다.

두 디저트의 레시피는 매우 유사하다. 우선 홍시 샤벳의 재료로 홍시, 올리고당, 감식초, 꽃감 그리고 호두가 필요하다. 우선 열린 홍시를 으갠 후 올리고당을 홍시의 1/10 정도 넣는다. 그 후 감식초를 올리고당의 1/5 정도를 넣고 잘 섞은 후 얼려준다. 그리고 열린 홍시를 스푼으로 담고 속에 호두를 넣은 꽃감을 얇게 썰어서 그 위에 얹어주면 간편하게 홍시 샤벳이 완성된다.

배 아이스크림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우선 재료로 배와 탄산수, 시럽 그리고 라임이 필요하다. 배의 껍질을 깎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탄산수와 라임, 시럽을 곁들여준 뒤 블렌더에 넣어 갈아준다. 그리고 갈린 재료를 밀폐용기에 넣어 얼리면 배 아이스크림이 단번에 완성된다.

이렇듯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한국 과일을 이용해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과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밀가루와 시럽으로 만든 디저트보다 건강에도 훨씬 좋다. K-디저트가 건강한 음식이자 맛도 뛰어나기 때문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에게는 한국의 맛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고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맛을 간편하게 알릴 수 있는 K-디저트의 종류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K-디저트는 어느덧 단순한 디저트를 넘어 한국의 문화와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알릴 기회가 됐다. 코로나로 인해 카페에 가서 디저트를 맛보기 힘든 이 시기에, 집에서 유튜브나 블로그,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레시피를 보고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기존의 요리법을 보고 따라 만들어보거나 디저트를 만들다 떠오른 새로운 레시피가 생겨 사람들에게 공유하다 보면 한국의 맛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K-디저트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소비돼 한국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시대와 국가 상관없이 계속해서 많아지길 바란다.

글 - 노하은 기자 dmisu7226@sungkyul.ac.kr

사진-네이버, tvN 홈페이지 / [참조]- 스포스뉴스, 연합뉴스



제2의 김용균법?

매해 산업재해로 인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있다. 이에 더 이상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과연 산업안전보건법 이후 제정된 이 법은 앞으로의 근로환경에 있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산업재해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故김용균씨의 모친은 지난 2020년 8월 26일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기재했다. “또 다시 용균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2003년부터 매해 약 2,400명이 일을 하다 사망하는 재난참사로 인해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즉, 산재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한층 더 강조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 빠진 ‘중대재해처벌법’이었다. 법안의 이름이 변경되면서 내용 역시 자연스레 변했다.

이에 해당 법안을 통한 정부의 정책은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에 산재 예방에 뒷걸음질 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일단 처벌수준과 중대재해 범위가 불명확하고, 법인과 별도로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법 의무 준수 범위까지 ‘유해 위험방지’처럼 추상적이다. 또한 내용에도 변화가 생기며 악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시키는데도 한계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본교 경영학과 김선제 교수와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봤다.

#교수님과의 인터뷰

Q. OECD 가입국 중 대한민국은 산재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환경, 기업문화 등을 봤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의 경제는 1970년 이후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자본주의 역사가 2~300년인 것에 비해 4~6배 정도 짧은 시간 만에 발전하다 보니 국가와 기업은 아무래도 효율성을 우선시했다. 이에 경영자와 정부는 외주, 하청 등을 통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안전을 등한시하게 된 것 같다.

노동자 역시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빠르게 일처리를 하는 것을 중요시 했다. 이는 효율성은 좋지만 안전성에 있어 매우 취약한 문화였고, 곧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중대재해사업장 처벌 중 산업법 위반 재발률은 97% 라고 합니다.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은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기존보다는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처벌대상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고를 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관리자 하에 직접적인 검사 및 교육이 이뤄짐으로써 안전과 관련해 더 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50인 미만의 기업은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으니 안전장비, 안전 관리자 및 회사 내부 규정까지도 세밀하게 개정해 개선해 나가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즉, 앞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안전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된다.

Q.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다른 위험 요소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를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만연한데도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제조업은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 해당 분야 사업이 발전해야 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이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처벌의 수위로 인해 대뜸 겁부터 먹고 포기함으로써 제조업 분야에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은 ‘무조건 경제성장이 우선이다’고 생각해 안전을 미뤄둔 경향이 있다. 기업들은 이번 법 제정이 ‘사업장 내 안전보건 역량’에 대해서 각성하는 계기를 삼아 안전망 구축을

잘 해야 할 것이다.

Q. 중대재해처벌법이 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경영계와 노동계 양 측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영계는 안전에 유의해 인식을 개선하고 ‘단 한명의 상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이에 맞는 교육과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기존 기업문화 내에서도 변화를 줘야 할 것이다. 노동계는 사회문화적인 인식 개선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여유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업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다시금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틈틈이 확인하며 교집합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1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는 인적, 물적 오류 등과 같이 현장 상황에 따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다. 단순히 기업 경영진에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는 오히려 앞으로의 기업 문화에 더 큰 혼란만 가져와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된 원인인 불씨를 찾아 진압해야 한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게 핵심이 결여된 법이 과연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는 비단 남의 일이 아니다.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나오는 법안은 그 누군가의 ‘희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글 - 오승민 기자 sm961215@sungkyul.ac.kr
[참조] 연합뉴스, 한겨레



사라져버린 어깨를 찾아서

최근 필라테스나 요가 등을 하며 자신의 체형과 자세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번 호를 통해 불균형해진 우리의 자세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선생님 제 어깨는 왜 이렇게 입이 빠죽 나와 있나요?

라운드 숄더는 소흉근과 상부승모근이 긴장해 힘이 들어가고, 하부승모근과 전거근은 약해지면서 발생한다. 이는 잘못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데,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는 이들에게 더 두드러진다. 몸은 편안한 상태를 원하기에 자연스레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목이 빠지면 어깨도 저절로 따라 나온다. 이 자세가 지속되면 목과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의 텐션이 높아져 통증을 유발한다. 심해질 경우 회전근개의 손상 및 어깨충돌증후군과 같은 퇴행성 질환을 야기한다.

#그런데 저 확실히 라운드 숄더가 맞긴 한가요?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시간이 없어 번거로울 수 있을 학우들에게 벽과 각도기로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만약 집에 각도기가 없다면 핸드폰 앱을 사용해도 된다. 우선 각도기를 35°로 맞춘다. 벽에 등을 대고 기댄 채로 날개뼈 윗부분에서 어깨뼈까지 임의의 선을 긋고 각도를 측정한다. 체형 해부학에 따라

면 측정된 각도가 약 35°일 때 이상적인 중립어깨이다. 중립어깨의 각도와 비교했을 때 측정된 각이 훨씬 크다면 라운드 숄더일 가능성이 높다.

#선생님 저 드디어 어깨가 돌아왔어요!

앞선 자가진단을 통해 라운드 숄더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교정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라운드 숄더 교정에 있어 핵심은 역시 꾸준한 스트레칭과 평소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다.

우선 척추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인체는 밸런스를 중요시하는데, 어깨가 말려 상체가 뒤로 가면 복부와 척추가 자연스레 앞으로 오면서 긴장해 뻣뻣해진다. 따라서 척추·복부를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하다. 척추를 바로 세웠으면 날개뼈가 안쪽으로 말리면서 자연스럽게 어깨가 구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날개뼈의 위치를 등 뒤로 가게 만들어야 한다. 명치를 가슴 쪽으로 올리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명치가 올라가면 굽은 등이 퍼지면서 날개뼈와 어깨의 위치가 조정된다. 그리고 너무 높은 베개를 베고 자거나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도 좋지 않다. 대신 누워있을 때 가슴과 손바닥이 최대한 천장을 향하도록 눕는 것이 좋다. 업무를 하거나 핸드폰을 볼 때에 1~3분 동안 스트레칭 시간을 갖는 것도 교정에 도움을 준다. 스트레칭은 현지 물리치료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크레이터들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해 자신의 몸 상태와 가장 적합한 영상을 따라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나 치료시기를 놓쳐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전에 병원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집에서 손쉽게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는 만큼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습관 고치기와 동시에 적절한 치료가 병행된다면 더욱 건강한 어깨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글 - 오승민 기자 sm961215@sungkyul.ac.kr
[참조] 아시아경제, 파이낸스투데이

기자 칼럼

모두 녹아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번 겨울은 눈이 자주 쌓였다. 새하얀 밤이 지나면 늘 골목 사이 눈사람이 우뚝 솟아 있곤 했다. 발갈게 상기된 뺨. 눈을 뭉치는 쫄쫄 언 손끝. 하얀 눈밭에서 용케 돌을 찾아 이긴 눈이고 저건 입이 되는 순간. 누군가의 애인이 꺾꺾 눌러 빗은 눈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밤새 눈을 부풀린, '사람의 흔적'이 느껴진다. 차가운 것에 갇든 따뜻한 것들. 나는 그런 것들이 참 반갑다.

순수를 입고 태어난 눈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반가운 건, 눈사람을 부수는 행위를 폭력적으로 느끼는 시선이 생겼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시선들이 '폭력과 불안으로 얼룩진 현대사회의 피로'를 견디다 못해 탄생한, '초능력'이라고 믿는다. 예민하고 기민한 시선. 이러한 시선은 일상에 스며든 폭력을 참지 않고, 불의를 반(反)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가수 이적은 눈사람 부수기에 대한 단상에 대해 "이런 장난 가지고 심각한 표정을 짓느냐는 듯 이죽거리는 눈빛이 역겨웠다"며 "눈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면 동물을 학대할 수 있고

마침내 폭력은 자신을 향한 거라는 공포"라는 문장을 썼다. 비약이 심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들도 곧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눈사람을 부수는 행위를 폭력으로 정의할 때, 우리의 삶은 성장을 이룩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 사회가 지금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저항할 수 없는 무력한 대상'을 향한 폭력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며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겠다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사람들은 폭력으로 인식하고 이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눈사람을 부수는 행위를 두고 웃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눈사람을 만든 마음을 지켜볼 수 있다. 한겨울 코트만 입고 일하는 주자요원들을 보고 백화점에 항의 하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영상물등급표의 선정성 표기가 여성의 실루엣이라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 질 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혐오에 긴장할 수 있게 된다.

“

한국 사회가 지금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저항할 수 없는 무력한 대상'을 향한

폭력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

”

2020년은 안타깝게도 폭력과 혐오 범죄로 한국 사회가 얼룩졌다. 하지만 그에 대항하는 예민하고 기민한 초능력자들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거라 믿는다. 나는 세상 모든 눈사람이 녹아서 사라지는 그 날을 상상한다.

글 - 김민진 기자 zzzzzzzzzzin@sungkyul.co.kr

체험 에세이

걷는 삶



김은서 기자

내 인생에 김스는 정확히 세 번 있었다. 큰 개에게 물렸을 때, 인대가 늘어났을 때, 그리고 피로 골절 판정을 받았을 때. 뼈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줘 실금 형태의 골절이 일어난다는 피로 골절은 1년이 넘도록 근육통으로 치부하며 방치한 뒤에서야 알게 된 병명이다. 크게 넘어진 적도, 무리하게 운동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골절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생각지 못한 통김스를 하게 됐다.

두 번의 반김스 경험을 토대로 이 또한 가볍게 지나가리라 생각했던 통김스 기간은 답답함의 연속이었다. 다리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단 것 마냥 묵직했고 거동은 순식간

에 거북이처럼 느려졌다. 또 씻을 때마다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궁상을 떨어야 했으며 잠깐의 외출을 위한 택시비는 덤이었다. 김스를 푼 뒤에도 문제는 계속됐다. 발걸음이 우렁차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힘이 가득했던 발과 다리는 근육이 다 빠져 시름시름 앓았다. 약 6주의 시간이 꽤 길었다는 걸 알려주듯 절뚝거리는 걸음은 어느새 생활화됐고 계단을 내려가는 방법도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지나간 시간 동안 발 한 쪽과 사투를 벌이며 문득 정상적으로 걷고 뛸던 때가 언제였는지 돌아보게 됐다. 총 분했던 횡단보도 보행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들자 발 하나의 불편함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병원을 다니면서 나와는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것으로 끝나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것만으로도 벽찬 고통이라고 해야 할지 정의를 내릴 수 없었다. 그럼에도 김스를 하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내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다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함, 내가 걷는 이 길에 대한 소중함 등 여러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재활하는 것뿐이었다. 뒤늦은 관리가 모든 것을 되돌릴 순 없었지만 다시 얻게 된 '걷는 삶'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걷는 삶'은 어떤 것인가? 당연히다 생각했던 나의 무지함이 당신을 일깨웠기를 바란다.

글 - 김은서 기자 yuu456@sungkyul.ac.kr



편집장 노트

최고의 사랑

작고 허름한 손목시계일 뿐인 나에게 친구가 찾아왔다. 그가 걸치고 있던 파란색 시곗줄은 크고 단단해 보였다. 지난 5년의 세월이 담긴 내 시곗줄과는 견줄 수 없는 신비로움을 갖고 있었다. 시침이 1을, 분침이 12를 가리킬 때 그가 말했다. "내 시곗줄 겹쳐봐. 잘 어울릴 거야"라고.

한동안 파란색 시곗줄을 걸치고 열심히 초침을 돌렸다.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다른 손목시계들도 모두 나를 보고 감탄했다. 완벽한 손목시계가 됐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초침이 그의 것보다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뵐새! 배터리 수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잊어버린 것이다. 시침이 3을, 분침이 12를 가리킬 때 그가 말했다. "내 배터리 꺼봐. 잘 돌아갈 거야"라고.

그의 말대로 초침은 다시 잘 돌아갔다. 비로소 완벽한 손목시계로 재탄생한 것이다. 허름했던 초침과 분침, 숫자가 멋지게 보였다. 누구의 손목에 걸려지던 사랑받는 시계가 될 거란 생각에 두근거려 그에게 물었다. "사랑에게 사랑받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야?" 그가 대답했다. "내가 너에게 해준 모든 게 사랑이야.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지"

나는 밤새 생각했다. '그게 사랑이라니.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었다니.' 순간 허름한 검정 시곗줄과 고장 난 초침을 가진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예전 모습과 별다를 게 없었다. 그럼에도 항상 최고라 말해준 그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사랑은 초라한 모습과 상관없이 찾아왔다.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더 이상 허름한 손목시계로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과거의 나를 사랑하고, 앞으로의 나를 사랑할 거라고.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넌 이미 최고의 시계니까”

사랑은 연애를 꿈꾸고 우정을 다지게 한다. 대상에 따라 마음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일치한다.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수용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먼저 사랑할 것. 타인을 수용하기 전에 명심해야 할 사랑 공식이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주간사설



임태균 교수
동아시아문리학과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당시 바둑계의 세계 1인자로 군림하던 이세돌이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와의 맞대결에서 1대 4로 완패한 일은 전 세계 인류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다주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라 일컬어지는 ‘에니악(ENIAC)’이 발명된 이후 정확히 70년 만에 일어난 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인공지능이 가져올 폐해에 대한 공포감과 위기감을 갖게 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공포감과 위기감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

인간과 시와의 공존

이다. 인간과 같거나 또는 그 경지를 넘어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은 확실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하다. 영화 <터미네이터>시리즈에서 그려왔던 지극히 비관적이고 암울한 디스토피아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면 정말이지 끔찍한 노릇일 것이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이 성사되기 1년 전에 개봉된 SF영화 <엑스 마키나>는 놀랍도록 진화된 AI로봇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세계 최고 검색엔진의 사장인 네이든의 이벤트에 당첨된 남자주인공 칼렘이 네이든의 호화로운 저택에 초대받아 일주일동안 생활을 하게 된다. 실은 AI로봇의 지능을 테스트하는 비밀 연구소였던 그곳에서 칼렘은 지능과 감성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여성 AI로봇 에이바에게 매료되어 그녀를 연구실에서 탈출시키는 작전을 꾸미게 된다. 하

지만 이 모든 것이 칼렘의 마음을 교묘하게 움직인 에이바의 계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녀가 칼렘을 유혹하고 배신하여 결국에는 칼렘을 가두고 탈출하는 장면에서 영화는 끝이 난다. <엑스 마키나>는 깊은 사고력을 지닌 인공지능의 등장이 가까운 미래에 인류에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의 미래와 인류의 딜레마에 대해서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 이러한 경각심은 물론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누구도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인공지능이 사용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인공지능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 연초에 방영된 SBS 신년특집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공존하는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서 화제가 되었다. 작곡, 골프, 주식투자, 모창, 심리 인식, 몽타주 제작 등 6개 분야에서 펼치는 인공지능과 인간 최고수 간의 대결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발전의 현주소와 더불어 인류와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다.

초연결의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과의 공존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인류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협업’은 필연적이다. 더 이상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게 될까, 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의 결실이 문화, 예술, 공연, 스포츠, 의료 등 각 분야에서 빛을 발하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임형백 교수
국제개발협력학과

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미생물에는 곰팡이(fungi), 세균(bacteria), 바이러스(virus)가 있다. 그러나 미생물 중에서 병을 일으키는 종류는 전체의 1%를 넘지 않는다. 미생물은 인간 세포에 비해 보통 100배 이상 작다. 손에도 150종 이상이 있고, 입의 점액에는 800여 종, 코 점액에도 900여 종이 살고 있다. 인체내부의 장내에는 약 5,000종이 있다. 오늘날 지구에는 약 70억 명의 인간과 6×10 마리의 세균이 공존한다. 인간의 신체는 10조 개의 세포로 구성돼 있지만, 인간의 신체에는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

한편 기원전 1만년 경 인간은 농업을 시작했다. 농업혁명 이전의 전 세계 인구는 약 6,000만 명에 불과했다. 식생활이 풍족해지자 인간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정착과 야생동물의 가축화는 인수공통감염병

(zoonosis)을 가져왔다. 야생동물들이 가축화되면서 인간과의 접촉이 늘어났고, 인간에 적응하는 병원균들이 나타났다. 인간에게는 재앙이지만, 병원균의 입장에서 진화를 통한 생존범위의 확장이다. 홍역, 결핵, 천연두 등은 소에서 유래했고, 백일해(pertussis)와 인플루엔자는 돼지에서 유래했다. 미생물에 의한 전염병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원인이다. 백인들이 가져온 천연두로 아메리카 인디언의 90%가 사망했다.

최근 발생하는 인간전염병의 75% 이상이 인수공통감염병이며, 현재까지 약 250종이 알려져 있다. WHO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라사열 바이러스(Lassa fever) 등 10대 감염병이 모두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에볼라, AIDS, SARS, MERS, COVID-19 모두 인수공통감염병이다. SARS 바이러스가 출현한 이후, 바이러스 학자들은 밀림이나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전이될 수 있는 위험한 바이러스들을 조사해왔다.

야생에 존재하는 미지의 바이러스는 160만 종이다. 인간은 지금도 자원을 찾아 밀림

과 오지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인구가 늘면서 도시 인구 밀집도가 높아졌고, 육식소비증가는 대규모 밀집 목축을 가져왔다. 산림을 벌채하고 도시를 건설하면서, 야생동물들이 인간과 접촉할 기회가 늘어났다. 기후변화로 온도와 강수량, 습도가 달라지면서 동물들의 서식지나 번식 행태 등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처럼 신종 감염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증가, 산업화, 육식소비증가, 기후변화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3~5년을 주기로 COVID-19 같은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신종 바이러스가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종간장벽(species barrier)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연변이나 바이러스 간 재조합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바이러스가 어떤 환경적 변화에 의해 인간에게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과거의 신종 바이러스에서도 그러하듯이, 인간 바이러스로의 변신은 원래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자연숙주(natural

host) 동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연숙주와 인간 사이에서 바이러스를 연결하는 중간전파매개체 역할을 하는 동물의 몸속에서 일어난다. 가축, 애완동물, 인간이 먹는 모든 동물이 중간전파매개체가 될 수 있다.

2002년 중국 광둥성에서 발생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15년 중동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모두 인수공통감염병이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인간으로 비교하면, SARS, MERS, COVID-19는 친형제이다. COVID-19의 원인인 SARS-CoV-2(2019-nCoV)는 계통분류학적으로 MERS(MERS-CoV) 보다는 SARS(SARS-CoV)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SARS는 증상이 있을 때 감염된다. MERS 바이러스에 감염된 낙타의 대부분은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중동에 있는 단봉낙타는 MERS에 감염되지만, 몽골에 있는 쌍봉낙타는 아직 감염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COVID-19는 무증상감염이 되기 때문에,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고 역학조사(epidemiological investigation)가 어렵다.

교수칼럼

인구증가가 초래한 환경파괴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각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옆의 표에서 지워주세요.

각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옆의 표에서 지워주세요.

정	생	바	중	힐	회
코	늘	링	대	나	법
크	악	쓰	라	학	관
하	술	레	로	대	로
관	재	기	학	별	기
음	해	산	처	플	보

문제의 답을 모두 지우고 남은 글자를 조합해 단어를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각 문제는 이번호 기사의 관련 용어를 가리킵니다.

지난 호
정답

- 이번 대학면의 새로운 코너 ‘SK유클즈’는 ○○에 대해 다뤘다.
- ‘이크, 예고!’에선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에 대해 다뤘다.
- 2019년에 발생한 ○○○로 인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 ‘시리즈 기사’에서 ○○는 단절돼야 한다고 말한다.
- 학보사는 ○○○○ 109호에 위치해있다.
- 영화 ‘소울’에서 주인공 조는 ○○ 선생님이로 등장한다.
- 본고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서관 명칭은 ○○○○○이다.
- 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 크루아상과 와플의 합성어인 ○○○은 요즘 인기 있는 디저트 중 하나다.

응모기간 : 4월 16일(금)까지
응모방법 : 학보사(학생회관 109호)로 제출
해주세요

<정답란>

독자 참여

성결대학보사에서는 학우들의 귀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퍼즐과 함께 학우들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관심있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 다음 호에 다뤘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 만약 다음 호부터 새로운 코너를 기획한다면 생겼으면 하는 코너가 무엇인가요?
- 학보사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학부(과) : 연락처: 이름:

거침없는 청년정신 / 도전하는 기자정신 / 잘나가는 학보사

거침없는 청년정신 도전하는 기자정신 잘나가는 학보사

특전

- 작문 실력 향상
- 매 회의 시 저녁 식사 제공
- 하계, 동계 연수회 지원
- 타 학과 학우들과 원활한 교류
- 다양한 간식 매일 구비
- 개인 사물함 및 프린터 무료 사용 가능
- 교내 축제 및 행사 시 연예인 밀착 취재 가능
- 넓은 공간에서 자유로운 휴식과 함께 휴대폰 충전 가능

모집요강

[모집 대상] 2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신입생 및 재학생

[모집 기간] 3월 8일(월)~4월 30일(금)

[지원 방법] 학보사 오픈채팅방에서 지원서 다운 및 제출

[문의] 김가운 편집장 010.4866.6551